

기관지와 문예지의 길항-朝鮮文學家同盟 기관지 『文學』 創刊號를 중심으로

徐 亨 範*

차 례

- | | |
|------------------------|--|
| I. 序論 | 1. 자기성찰의 계기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 |
| II. '해방맞이'의 두 가지 시선 | 2. 지식인의 '해방맞이'와 '해방살이'의 거리에 대한 상보적 시선 구축 |
| 1. '해방'에 대한 통합적 시각 제시 | |
| 2. 자기 성찰에 의한 시선의 분화 | |
| III. 소설과 비평의 상관적 해석 구조 | IV. 結論 |

국문초록

소설과 비평이 한 자리에 실려 있는 문예잡지는 개별 저작들이 하나로 묶인 더 큰 규모의 텍스트로 수용됨으로써 좀 더 큰 규모의 문학 텍스트로 소비되기 마련이다. 문학잡지처럼 소설과 평문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 텍스트들은 서로의 의미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의 장 속에 놓인다. 이런 양상이 조선문학가동맹과 같은 좌익 계열의 조직적 문학운동단체의 기관지에서 펼쳐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두

* 京畿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助教授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함께 읽는 데서 비롯되는 의미의 상호 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들에 적용되는 해석 규범의 관습성과 새로운 저작물로서 요구하는 독법의 새로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본고는 『文學』 창간호 소재 소설과 평문들에 대한 병렬적 독법을 통해, 기관지이면서 문예지라는 태생의 이중성이 빚어낸 내부의 긴장이 전일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운동’과 개성적이고 내면적일 수밖에 없는 ‘문학’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해야만 하는 것’과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사이에 서 있던 작가들의 ‘자기의 선택’과 ‘타자의 시선’이 빚어내는 불일치에서 비롯된 불균형이었다. 그것은 네 편의 소설작품들이 관찰적 시선에 의해 서사를 추동시키면서도 각기 서로 다른 지향과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그리고 병렬된 비평저작들이 기관지가 되기를 욕망하는 ‘조직의 목소리’와 문예지로서의 자유로움을 욕망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미봉된 형태로 상이한 층위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 문예지, 해방공간, 텍스트의 상관성

I. 序論

본고가 논의 대상으로 삼은 잡지 『文學』은 해방공간에 등장했던 비판적 문학운동가들의 조직인 朝鮮文學家同盟의 공식 기관지였다.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의 문학인들에 비해 좀 더 조직적 활동에 ‘익숙’했던 좌익 계열의 문인들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발빠르게 새로운 민족문학 건설

을 목표로 삼아 조직적 움직임을 실체화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여러 예술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통합하여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단일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의 기관지로 발행한 것이 본고의 연구 대상인 『文學』이다. 잡지의 제목이 ‘문학’인 것처럼, 이 잡지에는 해방 직후의 모색기를 지난 후 ‘民族文學論’을 표방한 여러 문인집단 가운데 이론적 실천과 창작적 실천의 균형이 문학운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좌익 계열 문인들의 ‘文學’ ‘作品’을 모은 文藝誌로서의 속성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이는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운동이 자리한 자기모순의 증좌로서 마땅히 무게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곧 準 黨組織과 흡사한 구성을 지닌 ‘結社體’의 공식 입장을 공표하는 기관지로서의 성격과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근대적 개인들의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수렴하는 동인지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文學』에 대한 본고의 연구방향을 결정한다. 아울러 ‘創刊號’가 지니는 특수성, 일차적으로는 창간 주체라 할 수 있는 朝鮮文學家同盟側의 자기확신과 공식성에 더하여, 이들과 이 텍스트를 대하는 동시대 독자들의 기대지평이 마주서며 빚어내는 텍스트 해석 공간은 이제까지 해방공간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연구 시각이 결하고 있었던 텍스트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한다. 다시 말해 좌익 계열의 민족문학론의 형성과 그에 관여했던 문학인들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던 그동안의 연구들은 『文學』을 여타의 동인지나 문예지와 동일한 텍스트로 상정하고 수록 저작들을 텍스트가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 위치와 관련된 맥락을捨棄한 채 단독체로 취급하여 해석해 왔다면, 그리고 『文學』이 기관지로서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직에 관여했던 이들의 履歷을 확인하고 年譜의 시각에서만 텍스트를 확인했던 데로 치우쳐 있었다 할 수 있겠다.¹⁾

1) 수많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이러한 특징을 가장 처음 드러냈던 연구는 권영민, 김윤식이었고 이후의 비평사 연구 및 문학사 연구, 개별 작가론 및 비평론들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매체론의 시각에서 『문학』을 ‘雜誌’로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역시 수록 텍스트들을 ‘텍스트화’하여 살피는

소설과 비평이 한 자리에 실려 있는 잡지는 개별 저작들이 하나로 묶인 더 큰 규모의 텍스트로 수용될 수 있다. 소설과 평문이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서로 의미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조선문학가동맹과 같은 좌익 계열의 조직적 문학운동단체의 기관지에서 펼쳐진다면 그것에는 단순히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함께 읽는데서 비롯되는 의미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해석의 순환이 발생한다. 텍스트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더 큰 텍스트 단위에서 그 의미가 재확인되거나 굴절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그런데 ‘문예지’이자 ‘기관지’라는 이중의 힘이 작동하는 자리에 놓인 『文學』 소재 소설 작품들의 경우, ‘기관지’를 견인하는 문학운동의 ‘담론’이 기계적으로 ‘문예지’로서의 모습을 지향하는 ‘작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작품과 담론이 놓인 자리가 만들어 내는 메타적 구조 속에서 그 의미가 확인될 수밖에 없다. 상위 범주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의미소들이 이른바 문학의 하위 장르로 분화되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장르의 규범들이 작동하며 독자적인 해석 구조를 지니게 된다. 독자들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꾸려진 해석 구조를 지닌 각각의 텍스트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각각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접한 동일하거나 다른 하위 장르의 텍스트들을 만나도록 구성된 것이 잡지라는 텍스트가 지닌 특성이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를 朝鮮

대신 ‘資料’로 취급하고 있었다. 박정선은 치밀한 자료독법을 통해 해방공간의 좌익계열 문학운동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실증주의연구’를 앞에 두고 해방공간에 대한 연구에 나서야 함을 적절하게 지적하였으나(「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화대중화담론과 조직적 실천」, 『어문학』93, 한국어문학회, 2006.), ‘문학’운동보다 문학 ‘운동’에 주목하려는 논문의 목표 탓에 기관지이자 문예지로서의 『文學』에 많은 무게를 할애하지 못하였다. 이양숙의 경우 ‘朝鮮文學家同盟’의 ‘문학운동조직’으로서의 특징을 포착하는 ‘기억’을 중심으로 좌익의 문학운동을 섬세하게 분석하였으나(「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28, 한국현대문학회, 2006.), 역시 이들의 ‘기관지이자 문예지’인 『文學』 자체의 위상을 값있게 살피는 데는 주목하지 않았다.

文學家同盟의 공식 기관지이자 해방공간의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文藝誌라는 이중지향을 담고 있던 『文學』 所在 소설작품들을 중심으로 ‘해방맞이’라 할 수 있는 해방공간의 ‘재현’ 양상을 비평적 저작들과 병렬하여 텍스트의 상호관련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소설과 비평 저작에 한정된 것은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은 규모의 연구논문이 다룰 수 있는 연구 대상 텍스트의 물리적 제한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수록된 소설작품들의 이른바 ‘화자’가 ‘작가’로 치환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자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과 비평의 저작자들이 ‘조직’이라는 동일한 담론의 장에 서 있는 문학운동가라는 점이다. ‘해방’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전후한 시기의 삶이 어떠했고 각각의 삶의 주체들이 어떤 내면풍경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작가 자신’이 기술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안겨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네 작품들이 주목받아 마땅하다 하겠다(‘두 가지 문제’는 본론에서 다시 살펴본다). 두 번째 이유는 수록된 네 작품 가운데 李泰俊의 <解放前後>가 朝鮮文學家同盟이 주관하는 ‘解放文學賞’의 소설부문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朝鮮文學家同盟이 해방공간의 ‘문학’이 어떠해야 한다고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解放文學賞’이라 할 수 있는바, 李泰俊의 <解放前後>는 朝鮮文學家同盟의 문학적 지향에 대해 살피는 데 필수적인 저작이고 이 저작의 앞과 뒤를 이어 주는 나머지 세 편의 저작들 역시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한 비평문은 소설 작품들 사이의 일종의 ‘위계’를 보완하여 해석할 수 있게 하거나 비평과 소설이 하위 장르의 차이가 빚어내는 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도록 병렬되어 배치된 잡지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세 번째 이유는 ‘文藝誌’이자 ‘機關誌’라는 『文學』의 독특한 위상을 살피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문학 본령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소설과 시

그리고 비평일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소설과 비평은 식민지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병행을 목표로 삼았던 KAPF 계열 작가들 및 비평가들이 해방공간에서 어떤 문학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과 비평을 우선하여 살펴봄으로써 해방공간의 좌익계열의 문학적 실천의 출발점을 가늠해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해방공간의 문학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창작과 실천의 긴밀한 상호관련에 주목하기보다 이론 차원의 민족문화론과 문인 개인들의 사적 고백으로서의 소설을 분리하여 연구하였던 것을 반성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며 또한 본고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미학적 차원의 문제의식인 ‘서사양식’의 시각이 해방공간의 문학을 살피는데 특히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동시대의 역사적 상황들 관통하는 작가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학적 실천 사이에 가로놓인 시-공간의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서사양식의 기본 구조인 ‘서술자-화자-초점화자’의 구도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근대적 개인의 서술주체화, 서사주체화를 전제로 형성된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주인공 또는 초점화자와 화자 또는 서술자 등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분석되어야 마땅하다. 본고가 이 문제를 다루는 범위는 앞서 언급한 네 편의 소설작품에 한정하되 추후의 논의를 통해 해방공간의 작가의식을 서사양식의 구조를 통해 해명하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본고의 논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II. ‘해방맞이’의 두 가지 시선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이자 해방공간 좌익계열 문인들의 文藝誌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 『文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창

간호 소재 수록 소설작품이라 할 수 있다. 『文學』 창간호에는 네 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작품들이 지니는 중심 서사의 특징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소설작품들 단독이 아니라 네 편의 소설들을 한데 아우르는 일정한 방향성을 추출해보려 한다.

1. ‘해방’에 대한 통합적 시각 제시²⁾

李泰俊의 <解放前後>는 주인공 ‘ㄷ’이 시골에서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ㄷ’은 작가 李泰俊의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실제 작가의 내면과 식민지 말기 지식인이 겪었을 법한 삶의 작은 일상들이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朝鮮文人報國會’로 대표되는 ‘강요된 친일행위’에 대한 李泰俊의 ‘해명’을 담고 있어 해방공간의 좌익계열 문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평가를 받던 작품이다.³⁾ 작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재로 삼은 자전적 작품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주인공 ‘ㄷ’은 작가 李泰俊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식민지 말기를 살아가고 있다.⁴⁾ 그런데 본고는 이 작품

2) 서경석은 “과거의 삶에 대한 비판 혹은 자기변명 속에서 새 일군으로 현실에 참가하려는 모습”을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추출하고 이를 ‘자기비판의 불철저함’으로 직접 연결시킨다(『미군정기 소설의 현실인식』,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 연구』, 열음사, 1989, 98-102면.). 본고는 이 두 작품 사이에는 ‘해방맞이’의 준비에서의 차이가 두 작품의 거리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정호웅은 李泰俊의 실제 행보가 ‘ㄷ’과 정확히 일치함을 지적한다(『해방공간의 소설과 지식인』,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 연구』, 열음사, 1989, 84면.). 유철상 역시 이러한 지적에서 초점화자 ‘ㄷ’과 작가의 동일화를 언급한다(『해방기 민족적 죄의식의 두 가지 유형』,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2006, 358면.).

4) 유철상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보여준 불안 탈출 욕망과 과거단절 의식은 그 작가인 이태준 역시 실제로는 조선어라는 절대의식을 견지하지 못했던 사실(즉, 친일행위)이 투사된project 표현으로 보이며, 해방 후 이를 정치적 진보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속죄의식을 보여주는 것”(유철상, 위 논문, 361면.)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시각은 주인공 ‘ㄷ’과 작가 李泰俊을 동일한 ‘주체’로 상정했을 때 가능한 것인바, 본고는 이와 달리 작가를 팔호 속에 묶고 소설 내부의 인물인 ‘ㄷ’들의

의 주인공 ‘玄’이 취하고 있는 식민지말기의 태도 혹은 ‘포즈’가 해방공간에서 어떻게 변하고 의미화되는가에 좀 더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해방 직전과 직후 문인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작가 李泰俊 개인의 모습이 매우 잘 투영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⁵⁾ 그럼에도 이상의 연구들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玄’이라는 인물이 어떤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본격적으로 던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고의 문제의식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살폈듯이 한 개의 독립된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혹은 ‘성분’으로서 이 저작을 살피고자 할 경우, ‘玄’이라는 이 작품의 주인공 자체가 해방공간에서 지니는 의미를 묻는 것은 매우 본질적 차원에서 朝鮮文學家同盟으로 대표되는 해방공간의 좌익계열 문학론이 지향하는 ‘민족문학’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소설의 시작과 함께 ‘玄’은 파출소 순사가 전해주고 간 ‘시달서(示達書)’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다. “무슨 사상가도, 주의자도, 전과자(前科者)도 아니였다”⁶⁾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玄’은 자신이 왜 불안감을 느끼는가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그 진술이 ‘玄’ 자신이 아닌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는바, 이러한 평가를 잠시 유보하고자 한다.

5) 1947년 4월 간행된 『文學』 3호에는 朝鮮文學家同盟이 주관한 「解放文學賞」의 심사평과 그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李泰俊의 <解放前後>는 소설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심사평에는 “舊文壇의 指導的 作家의 한사람이었던 作家自身이 새로 文學運動과 民主主義運動에 加擔하여 鬪爭하는 가운데서 體驗한바 諸事實을 記錄한것”으로 “現代에있어 가장 根本的인意義를 갖는主題를 主觀的客觀的인 여러가지 矛盾가운데서 解明한데” 그 의의를 두었다 하였다(「一九四六年度 文學賞審査經過及決定理由」, 『文學』 3호, 1947.04, 55면.).

6) 李泰俊, <解放前後>, 『文學』 창간호, 朝鮮文學家同盟, 1946, 4면. 본고의 주석에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경우 작품과 평문은 모두 朝鮮文學家同盟이 발간한 『文學』 창간호에서 직접 인용하였다. 작품 인용 시 사용하는 조판기호들은 원 저작에 사용된 모양 그대로를 옮겼고 표기, 띄어쓰기 및 문단구성 역시 誤植임이 분명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도 연구논문임을 고려하여 원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인용 시 사용된 ‘①’ 등의 번호와 강조를 위한 밑줄 등은 모두 인용자의 표기이다.

서술적 개입에 의해 제시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① 일반지원병제도(一般志願兵制度)와 학생특별지원병제도 때문에 뜻아닌 죽음이기보다, 뜻아닌 살인, 살인이라도 내민족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고 있는 중국이나 영미나 소련의 우군(友軍)을 죽이여야하는 그리고 내민이 죽되 원수 일본을 위하는 죽음이 되어야하는, 이 모순된 번민으로 행여나 무슨 해결을 얻을가 해서 더듬고 더듬다가는 한낱 소설가인 현을 찾아와준 청년도 한둘이 아니었다. [중략] ② 이런 심각한 민족의 번민을 현은 제몸만이 학병자신이 아니라해서 혼자 뒷날을 사려해가며 같은 불행한 형제로서의 울분을 절제할수는 없었다. [중략] ③ 그들을 보내고 고요한 서재에서 아직도 상극된 현의 얼굴은 그에 무슨 일을 저질르고만 불안이었고 이왕 불안일바엔 이왕 저질러는바엔 이 한거름 한거름 절박해오는 민족의 최후에 있어 좀더 보람있는 저를름을 하고싶은 충동도 없지않았으나 ④ 그자신 아모런 준비도 없었고 너머나 오랜 동안 굳어버린 성격의 껍데기는 여간 힘으로는 제자신이 깨트리코 솟아날수가 없었다. ⑤ 그의 최근작인 어느 단편 끝에서,

(한 사조(思潮)의 밑에 잠겨 사는것도 한 물밑에 사는 낮일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 일러는 오나 모든게 따로 대세의 운행이 있을뿐 처음부터 자갈을 날려 깨꾸듯할수는 없을것이다) 라고한 구절을 되노히면서 자기를 헐가로 규정해버리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⁷⁾

위 인용은 ‘ㄷ’이라는 대상화된 주어를 통해 구성된 문장으로 ‘ㄷ’의 내면을 드러내어 서술적 개입에 의한 제시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인물내면제시방법은 제시된 정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하는바, 독자들은 ‘ㄷ’ 자신의 입이 아닌 제삼자의 목소리가 지니는 객관화의 힘에 의해 ‘ㄷ’이 위와 같은 번민 속에 놓여 있음을 공감하고

7) 李泰俊, <解放前後>, 5면. 이하 인용은 『文學』 창간호에 수록된 저작물의 제목과 해당 면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략히 출전을 표시한다. 인용문의 ①, ② 등의 부호와 밑줄 등 강조 표시는 논의 전개에 필요에 의해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ㄷ’에게 좀 더 호의적인 자리에서 서게 만든다. 그런 탓에 ①에서 ⑤에 이르는 장황한 ‘ㄷ’의 자기고백, 곧 ‘겸손한 지식인을 향한 대중들의 신뢰(①)’가 ‘지식인 자신에게 거시적인 안목을 체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②)’ ‘직접적 실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점에 이르나(③)’ ‘결국엔 소극적 자기인식에 머물러(④)’ ‘번민한다(⑤)’는 ‘ㄷ’의 이야기는 그대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작품은 ‘ㄷ’이 서울을 떠나 강원도 벽촌으로 移居한 뒤 이야기가 중심인 전반부와 해방 후 서울로 옮겨 좌익계열 문인들과 교류하며 ‘金直貞’이라는 전통지향적 인물에 대한 감회를 통해 당대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중심인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록된 작품 자체의 조판을 기준으로 한 전후반부와 식민 질서의 유무로 구별될 수 있어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는 해방의 전후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탓에 위 인용처럼 제시된 ‘ㄷ’의 ‘변명’의 힘이 매우 미약한 채로 희미하게 변해버리고 만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해 텍스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文學』 창간호의 19면 17행에 ‘나홀재 되던 날이 바로 「팔월십오일」인 것이었다.’라는 언급이 등장하고 19행부터는 1945년 8월 16일의 사건이 소개된다. 그런데 소설이 수록된 『文學』 창간호의 21면 20행에는 ‘○’ 표시에 이어 비로소 해방 후 서울에서의 ‘ㄷ’의 행적이 그려진다. 이렇게 본다면 소설 자체의 전후반부 구분은 ‘ㄷ’의 상경을 기준으로 나뉘나 그러한 구분은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지극히 상징적인 사건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의 ‘일상으로의 개입’에 의해 촉발되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변화 혹은 외적 사건의 발생을 기준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다소의 분석을 요하는 지점이라 하겠다. 곧 실제 해방이 된 날이 아니라 ‘해방이 삶에 관여하게 된 날’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자기화에 초점이 맞춰진 구분이 소설에서 더 중요하게 등장한다. 물론 이는 소설 창작에 있어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건으로서의 ‘해방’이 지닌 무게에 비춰 본다면 다소 이례적일 수도 있는 구성 방식이다. 물론 당대의

실제 사건이 소설화되는 데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동시에 독자들에게 실제 사건과 사건을 소설화한 이야기가 소비되는 데도 이러한 시간의 간격은 서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내재한다.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동시’가 아니라 ‘조금 늦게’ 행보를 시작하는 ‘ㄸ’에 대해 서술자는 변명처럼 다음과 같은 진술을 덧붙여 ‘ㄸ’의 지연의 이유를 밝혀 준다.

라디오는커녕 신문도 이삼일이나 늦는 이곳에서라 이 역사적 「팔월 십오일」을 아모것도 모르는채 지나버리었고, 그이튿날 아침에야 서울친구의 다만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로 비로소 제육감이 없지는 않았으나.⁸⁾

위 밑줄 부분은 ‘ㄸ’이 자리잡고 있던 터전이 輿地임을 드러내는 단순한 정보일 뿐 아니라 ‘ㄸ’이 서울을 떠나 선택한 곳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던 점이 상기되면서 ‘ㄸ’의 ‘낙향’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다.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 구라과에서 제이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아직 라바울을 직한다고는하나 멀어야 이삼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만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중략] 철도에서 팔십리를 빠쓰로 드러오는 곳이요 예전엔 현감(縣監)이 있던곳이나 지금은 면소와 주재소뿐인 한적한 구읍이다. 어느 시골서나 공의는 관리들과 무관하니 무엇보다 그덕으로 ① 징용(徵用)이나 면할가함이요 다음으로 잡곡의 소산지니 ② 식량해결을 위해서요 그리고는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 ③ 낙시질로 세월을 기다릴수 있음도 현의 그곳을 택한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나 와서 실정에 부드쳐보니 이 세가지는 하나도 탐탁한것은 아니

8) 李泰俊, <解放前後>, 19면.

였다.⁹⁾

‘ㄸ’이 택한 歸鄉地는 징용을 면할 수 있는 곳①이면서 의식주 해결 되는 곳②이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적합한 곳③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최적의 장소였음에도 ‘집을 팔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ㄸ’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나, 라디오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의 奧地인 탓에 집을 팔지 않으면서까지 가느다란 끈을 이어 놓았던 서울에서의 활동이 며칠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앞서의 언급이 ‘ㄸ’ 자신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서술자는 이러한 ‘ㄸ’의 ‘안타까움’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며 ‘ㄸ’의 지연에 대한 변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ㄸ’이 귀향지로 선택한 곳이 외부와 일정한 단절을 기대하면서도 연결고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ㄸ’의 ‘지연’은 ‘ㄸ’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굳이 ‘변명’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는 것임도 또한 명백하다. 그렇다면 서술자에 의한 이러한 ‘개입’이 단순히 ‘ㄸ’이 해방직후의 서울에 뒤늦게 나타난 것에 대한 가벼운 ‘변명’으로 볼 수만은 없게 되는데, 실제 후반부에서 ‘ㄸ’이 좌익계열 문인단체의 조직결과와 활동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은연중 드러내는 데서 그러한 의문은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될 수 있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불일치 혹은 불연속성을 지적하기도 하고, 특히 후반부에서 ‘ㄸ’이 취하는 모호한 태도를 두고 불완전한 자아각성을 비판적으로 논구되기도 하였다. 본고 역시 그러한 지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이나 후반부가 실질적으로는 ‘金直員’이라는 인물과 ‘대립’하며 ‘ㄸ’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는 결말로 이어지면서 ‘ㄸ’이라는 ‘관찰자’에 의한 해방공간의 ‘풍경’에 대한 ‘진술’이 실질적인

9) 李泰俊, <解放前後>, 8면.

이 작품의 초점일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작가의 自傳的 記述로 읽힘으로 인해 후반부가 그러한 讀法의 영향으로 ‘作家的 覺醒’이라는 연속성을 취할 것을 기대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이 작품은 ‘작가의 각성’ 과정을 서사화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방전후 조선 지식인의 내면을 ‘근대인’의 시각에서 살피는 관찰적 보고로 읽어감이 마땅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金直員’이라는 인물에 대한 ‘흐’의 시선은 매우 복잡적이며 심정적 거리의 유동 속에서 생기를 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작품이 朝鮮文學家同盟을 대표하는 기관지의 창간호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목차와 창간사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인 자리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해방공간에서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작가집단이 대표하고자 했던 일련의 문학적 지향들을 가장 확신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에 ‘흐’처럼 ‘기회주의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관조적’이거나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거나 ‘양가적’이거나 ‘관념적’인 인물형이 전면에서 제시되는 저작이 자리할 수 있었던 실질적 힘은 무엇인가.

해방 직전과 직후가 소설의 중심 서사를 가르면서 둘 사이를 이어주는 ‘흐’이라는 자각적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제시된 <解放前後>가 실질적으로 朝鮮文學家同盟이 표방하는 ‘새로운 民族文學’을 대표할 수 있는 代表性 혹은 典型性을 지닌 인물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움에도, 실제 작품을 통해 형상화된 ‘흐’는 ‘反省的’ 또는 ‘省察的’일 수는 있겠으나 서사의 시공간을 지탱하는 ‘해방공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핵심에 직접 맞닿은 치열함을 드러내는 대신 회고적으로 ‘기억하기’를 보여주는 데 그칠 뿐이다.¹⁰⁾ 물론 ‘흐’이 좌익계열 문인단체의 결성

10) 이와 관련하여 구재진은 “민족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비판이 미래의 국가건설이라는 정치적 열망과 결합할 때 자기비판의 윤리성이 어떻게 텅 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47, 한국비교문학회, 2009, 279면.).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조직이 표방하는 ‘건전한 문학인’의 마땅한 태도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¹¹⁾ 실제 朝鮮文學家同盟이 주관하는 「解放記念朝鮮文學賞」의 소설 부문에 이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점은 당시 朝鮮文學家同盟의 ‘해방맞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朝鮮文學家同盟은 기관지 『文學』 창간호에 <解放前後>를 수록하여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문인조직이 표방하는 해방공간의 대표적 인간형, 특히 지식인 인간형을 제시하고 다시 이 작품을 해방을 기념하는 대표작으로 추인함으로써 이중의 의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지식인 관찰자’에 대한 朝鮮文學家同盟의 과도한 편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安懷南의 <불>과 池河蓮의 <道程>이 보여주는 ‘계기적 서사’에 의해 다시 조명되어야 할 대목이다. <解放前後>가 ‘ㄸ’과 ‘金直員’이라는 ‘지식인’의 ‘관찰적 보고’에 무게중심을 둔 데 비해, <불>과 <道程>은 ‘관찰을 통한 주체각성’이라는 전형적인 단선적 서사구성을 따름으로써 ‘관찰대상자’와의 만남이 ‘관찰자’의 주체적 각성의 ‘계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朝鮮文學家同盟의 표방하는 해방공간의 ‘바람직한’ 인물형에 가까울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기에 충분하다.

池河蓮의 <道程>에는 ‘小市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당으로 표상되는 자아이상의 요구와 현실적 자아의 수행 사이의 긴장이 이 작품의 죄의식의 주요 축을 형성한다”¹²⁾고 하여 일종의 ‘부채의식’을 전제한 해방공간에서의 ‘자아비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

11) 본고에서 직접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文學』 창간호 실린 여타의 평문이나 소비에트와 중국의 문학운동에 대한 전문적 성격의 에세이들에서 발견되는 ‘해방공간의 전형’은 분명 ‘ㄸ’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林和, 金南天 등의 평문들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형과 <解放前後>의 ‘ㄸ’과는 매우 다르다.

12) 유철상, 위 논문, 361면, 주27) 참조.

다. 본고는 이 작품이 앞서 살펴본 李泰俊의 <解放前後>와 달리 ‘죄의식의 고백’ 계열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¹³⁾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에 수록된 소설작품 가운데 가장 처음에 놓일 수 있는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데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석재’라는 ‘이념지향형인물’이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라디오방송을 듣는 순간을 향하고 있다. 서울로 가기 위해 열차표를 받으러 기차역으로 향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열차 출발 시각보다 일찍 도착해 역 주변을 배회하다 학생운동으로 수감되었을 때를 잠시 떠올린다. ‘석재’의 과거 기억은 그 자신에 의해 ‘인간성’과 ‘윤리문제’로 귀결되곤 한다.

노상 그가 곤욕을 당는 곳이 밖에있는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안으로 그 암실(暗室)에 트집을 잡은 것이었기에, 그에 문제는 “인간성”에 가부맞고 미는 것이었다. 결국—네가 나쁜사람이라—는, 애매한 자책 아래 서게되면, 그것이 형태도 죄목도 분명치않은, 일종의 ‘틀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한층 그로선 용납할도리가 없었다.¹⁴⁾

위 인용은 ‘석재’ 자신이 자신의 ‘결벽증’에 대해 진술하는 대목이다. 시골로 ‘피신’한 자신을 자책하며 변절했음이 분명한 동료에 대한 비난을 퍼붓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 섞인 진술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여 ‘석재’라는 화자이자 주인공의 서사적 변모를 예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관찰자’로서의 ‘석재’가 서사의 전개를 통해 ‘행동적 주인공’으로 변해갈 것을 예비하는 복선처럼 읽히도록 배치된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동시에 ‘정결성’에 대한 傾斜가 자칫 외부 세계에 대한 전면적 부

13) 유철상은 <解放前後>와 <道程> 모두를 “금제위반에 대한 속죄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유철상, 위 논문, 360면). 본고 역시 이러한 물음에 동의하면서 두 작품이 ‘고백’이라는 양상을 빚어낸 계기적 사건에서 사뭇 다른 출발점을 보여주는 데 주목하여 차이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4) 池河蓮, <道程>, 52면.

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임도 예상하게 한다. 이 작품이 기관지에 수록되어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이후의 서사는 이러한 서술주체의 정신적 파국을 피하고 ‘모범적인 지식인’으로서 ‘석재’가 변모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바로 그 ‘계기’가 천황의 항복 선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주어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석재’가 ‘직접’ 그 방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소년’을 통해 방송 내용을 알게 된다는 설정이다. ‘석재’ 스스로 방송을 듣고 천황의 항복 선언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석재’라는 주체에 의해 대상이 해석되고 의미화될 수 있는 직접성을 갖게 될 것이지만, ‘조선인 소년’의 ‘이상한’ 반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천황의 항복 선언을 알게 되는 것은 ‘석재’로 하여금 자신은 방송에 대한 반응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소년’을 살피고 항복 선언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일본의 패망, 이겼은, 간절한기다림이엇기에 노상 목전에 선연했든것 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렇게도 빨리올수가 있었든가?)—순간 생각이 라기 보다는 거림자와 같은 수천 수백 매듭의 상림(想念)이 미칠듯 급한 속도로 팽갹이를 돌리다가 이어 파문 처럼퍼져 침몰 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은 극히 순간이었을뿐, 다음엔 신기할 정도로 평정한 마음이었다. 막연하게 이럴 리가없다고, 의아해 하면 할수록 더욱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이상 더, 이것을 케어무를 여유가 그의게 없었던 것을 보면 그는 역시 어떤 싸늘한, 거반 질곡(桎梏)에 가까운, 맹랑한 흥분에 사로 잡혀 있었든것인지도 몰랐다.¹⁵⁾

‘석재’의 위 진술은 ‘소년’에게서 라디오 방송이 천황의 항복 선언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석재’ 자신의 내면을 진술한 것이다. 이 부분만은 갑

15) 池河蓮, <道程>, 54면.

작스럽게 찾아 온 ‘해방’을 앞에 둔 당혹스러움이 그려진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신기할 정도로 평정한 마음’이나 ‘케어무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은, 갑작스럽게 닥쳐 온 해방을 앞에 둔 당대 조선인 대부분이 느꼈을 법한 당혹감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에 바로 이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이어지며 ‘석재’는 다시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 조선도 독립이 된대요. 이제막 아베 소—도—구가 말했대요.」
소년은 부자연할 정도로 눈가에 우습까지 띠우며 이번엔 말하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발서 별다른 새로운 감동이 오지는 않는다.

(역시 조선 아이였구나—)

하는, 사뭇 객적은것을 느끼며 잠간 그대로 멍청히 앉아 있노라니, 이번엔 고이하게도 방금 목도한 소년의 습은 심정에 작구 궁금증이 가는 것이다.¹⁶⁾

‘소년’의 ‘반응’에 대해 ‘반응’하는 ‘석재’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지닐 것으로 기대하는 해방의 흥분보다 앞서는 당혹감을 ‘덤덤하게’ 표현하는 ‘소년’에 대한 관찰로 집중된다. 이 지점에서 이미 ‘석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주체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해방의 순간에 자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후의 서사는 ‘관찰자’인 ‘석재’의 시선에 포착된 해방공간의 풍경들로 채워질 것임이 예상된다. ‘소년’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슬픈 표정을 지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석재’ 자신을 천황의 항복 선언을 듣는 조선인 일반과는 분리된 자리에 놓고 대상을 살피고 글쓰기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 가는 또 다른 존재로 분리시키는 인식틀이 작동된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이 작품의 부제인 ‘小市民’이 의미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주어진

16) 池河蓮, <道程>, 54면.

다. ‘주인공’ 혹은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방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관찰하고 과거의 ‘기억’을 반추하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되새김질하는 ‘석재’를 두고 ‘소시민’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메모를 이 지점에 붙이면서 이후의 서사는 이 메모를 향해 추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이 작품의 후반부는 ‘석재’가 서울로 올라와 자주 찾게 된 ‘공산당’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석재’는 늘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 관찰하는 시선을 유지한다. 학생운동을 통해 알게 되었던 과거의 동지들이 ‘공산당’을 결성하여 새로운 정치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석재’는 늘 한 개 ‘괴물’과 마주 서 있다.

잠간 시선이 어데가 머무러야 할지, 눈앞이 아리송송 한개, 골치가 지끈 지끈 아프다. 눈을 감았다. 순간, 머리속에서 독감이 처름 붙끈 솟는 “괴물”이 있다.—“공산당”이었다.—그는 눈을 번쩍 떴다.

다음 순간 이 괴물은, 하늘에, 땅에, 강물에, 그대로 땀을 도는가 하니, 원간 찰거머리처럼 뇌리에 엉겨부터 도시 떠러지질 않는 것이었다.—생각하면 긴—동안을 그는 이 괴물로하여 괴로웠고, 노여웠는지도 모른다. 괴물은 무서운 것이었다. 때로 억척같고 잔인하여, 어느곳에 따뜻한 피가 흘러 숨을 쉬고 사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귀 막고 눈 감고 그대로 절망하면 그뿐이라고, 결심할때에도, 결코 이 괴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었다. 괴물은 칠가치 어두운 밤에도 화—이 밝은 단 하나의 “옳은것”을 진이고 있다, 그는 믿었다. —옳다는—이 어데까지 정확한 보편적 “진리”는—나쁘다는—어데까지 애매한 틀리적인 가책과 더불어 오랜동안 그에겐 크다란 한개 고민이 었든 것이다.¹⁷⁾

길고 장황한 고민이 날것 그대로 쏟아져 나온 ‘석재’의 위 진술은 그가 ‘관찰자’에서 ‘주체로’ 옮겨 가야 할 지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와 마주 선 ‘괴물’인 ‘공산당’은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 들

17) 池河蓮, <道程>, 59면.

어야 할 대상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入黨書에 직업을 ‘소부르조아지’라고 쓴 뒤 ‘석재’가 보이는 급격한 ‘환회’와 이 대목이 서로 연결되어 독자에게 환기되는 까닭도 ‘석재’에게 해방공간에서의 결단이 요구되는 지점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선택한 ‘小市民’으로서의 길이 여전히 관찰적인 자리로 비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투사도 안이요, 혁명가는 더욱 안이었고…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운동자—모두 맞지않는 일흠들이다. 마침내 그는 “小부르조아”라고 쓰고 붓을 놓았다. 그리고는 기철이 뒤라고 허든 말든 급히 밖으로 나왔다.
[중략]

다음 순간 그는 몸이 헛전 하도록 마음의 후련 함을 깨닫는다—통쾌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무엇인지 하나, 가슴우에 외쳐, 소생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는 전후를 잃고, 저도 모를 소리를 정신 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小市民”과 싸호자! 싸움이 끝나는날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탄생할것이다. …나는 지금 영등포로 간다, 그러타! 나의 묘지가 이곳이라면 나의 고향도 이곳이 될것이다…)

별안간 환황증이 나도록 전차가 느리다.

그는 환—이 뚜러진 “영등포”로 가는 대한길을, 두팔개를 치고 뛰고 싶은 충동에, 가마니 눈을 감으며, 집사대에 기대어 섰다.¹⁸⁾

‘小부르조아’라고 쓴 뒤 느낀 ‘환회’가 무엇을 향하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小市民’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 끝의 죽음 뒤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재’는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는다. 이 작품이 ‘한 혁명가가 해방을 맞아 새롭게 자기성찰과 자기갱신의 여정을 밟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다. 이 작품을 수상작 후보로 거론하며 평가한 평

18) 池河蓮, <道程>, 59면.

문¹⁹⁾을 보면 朝鮮文學家同盟 측에서 이 작품의 주제의 時宜性을 주목했음이 확인된다. ‘소시민성’이라는 주제의 시의성은 그 주제의 磁場에 포괄되는 당대의 현실이 民族文學建設이라는 朝鮮文學家同盟의 목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찰자’인 ‘석재’ 스스로를 ‘小뿌르조아’라 명명하고 그것과의 대결을 선언하는 결말은 분명 새로운 인간형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여지가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들이 이 작품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추상성이 한계로 지적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 하겠다.²⁰⁾

바로 앞에서 살펴 본 <解放前後>과 연결하여 해석해 본다면, 오히려 이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회의적 관찰자’로서의 ‘석재’의 모습은 ‘지식인’ 상호간의 관찰과 소통으로 일관한 <解放前後>보다 좀 더 汎用的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석재’가 만난 ‘소년’이 바로 그러한 ‘소통’의 예를 보여주는데, <解放前後>의 ‘亥’이 ‘金直員’을 비롯한 과거의 동료들과의 관계맺음으로 해방 전과 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비해, ‘석재’는 ‘소년’과 기차역의 승객들처럼 낮

19) 새로운 朝鮮文學이 創造하여 나갈 人間의形象의 한境地를 開拓하고 있으며, 心理描寫及人物의 形象化에 있어 表示된 作者의 非凡한 資質과 더불어 우리들 가운데 있는 小市民性의 陰影을 感知하는 銳敏한 感覺은 注目에 冑하는 것 [중략] 그 影陰을 誇張함으로써 作者自身이 期하지 않고 小市民性에 對한 一種의 偏愛를 하였었다. 그리하여 主題의 時代性과 表現의 調密에도 不拘하고 主人公의 現實性이 減殺되고 作品全體의 事實性及 藝術의 迫力이 不足하여졌다(『一九四六年度文學賞審査經過及決定理由』, 『文學』3호, 1947.04, 56면.).

20) 서재원은 위 인용을 근거로 이 작품의 결말부분을 “전환 지식인의 내적 자존심 나아가 자기비판과 반성을 거친 이후 소시민의 한계를 인식하는 정적성 안에서의 운동에의 미래지향적 투신이야말로 이소설이 보여주는 주제의식이다. 다만 문제를 각성하고 행동으로 나가려는 마지막 부분은 작가의 주제의식이 소설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성급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지하런 소설의 전개 양상-인물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학』 44호, 국제어문학회, 2008, 349면.).

선 부류의 인물들에 대한 ‘관찰’과 과거의 동지들에 대한 ‘회상’을 병행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해방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실제 당시 조선의 다수 지식인들이 자신들만의 소규모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한 채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음이 당연하다 할 때, <道程>은 좀더 실제적인 지식인의 ‘관찰적 해방맞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小市民性’은 더욱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성찰의 계기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²²⁾

2. 자기 성찰에 의한 시선의 분화

앞선 두 작품과 이 절에서 다룬 두 작품은 소재나 서술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지식인 관찰자에 의한 ‘지식인에 대한 관찰’로 구성된 두 작품과 달리 安懷南의 <불>은 ‘지식인에 의한 대중 관찰’ 형태를 취한다. 그 결과 앞선 두 작품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대등한 위계가 만들어 내는 상호성이 서사 추동 원리로 작동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관찰자에 의해 드리워진 시선에 포착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관찰자를 향해 재귀적으로 의미화되는 구조로 서사가 진행된다. 달리 말하자면 ‘응시와 성찰’의 구조가 서사를 지탱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때 관찰 대상과 관찰 주체와의 서사적 거리에 따라 재귀적으로

21) 이와 관련하여 “(해방 전의: 인용자) 자신의 행위가 보편적 준칙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는 석재의 태도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함으로써 ‘석재’의 ‘결단’이 지니는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한다(구재진, 앞 논문, 289면).

22) 이 작품에 대해 이정은 “소시민성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지하련의 『도정』은 『해방전후』보다 훨씬 더 문학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를 안고 있으며, “심리묘사와 인물묘사의 형상력이 뛰어나” 문학성 면에서도 앞서 있다. 또한 ‘소시민성’이야말로 해방 이후 지식인들이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였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된다”고 나름의 가치를 지적한다(이정, 『지하련의 삶과 문학』, 『여성과 사회』 6, 한국여성연구소, 1995, 218면).

의미화되는 주제의식의 강도와 차원이 결정되는데, 앞선 두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관찰주체와 동일한 차원의 ‘同僚’들에 대한 관찰로 일관된 대비해, 이 작품은 ‘民衆’으로 불리는 대상들이 관찰됨으로써 관찰주체는 자신과 대상 사이의 서사적 거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지만 이는 도리어 관찰주체의 성찰적 자기이해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장애물의 가능성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사로 구조화하여 돌파하려 한다.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 온 ‘이서방’의 불행은 조선인민 일반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로 확대 해석될 여지와 함께 관찰자의 심리적 거리를 함께 만들어 낸다. 보름맞이 세시풍속을 소재 삼아 ‘안상’이라는 관찰자의 집에서 벌어진 에피소드에서 시작되도록 구성된 이 작품은 ‘이서방’ 모친의 다소 무례한 보름맞이에 대해 가족의 불쾌함을 달래는 관대한 화자의 여유가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위계를 드러낸다. ‘나’는 ‘이서방’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며 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만 ‘이서방’의 이력을 알아 가면서 그에 대한 ‘연민’이 ‘소설가적 호기심’의 발로임을 스스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징용으로 끌려 간 사이 아이가 병들어 죽고 아내 역시 귀국 바로 직전에 집을 나가버리고 노모가 누이 집에 얹혀사는 비극을 겪고 있는 ‘이서방’에 대한 ‘나’의 관찰적 시선은 관찰대상과의 심정적 거리를 크게 벌여 놓은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그를 한번 만나보고싶었다. 이웃사람으로서의 동정심도 있었지만 사실고백하면, 보다 소설가로서의 호기심이 컸다. 그가 오든날, 나는 멀찍이 나의방에 앉아있으면서도, 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었다. 한참 모자가 울드니, 조금후에는 새파란 젊은여자의 목소리가 끼었다. 물론 달려온 그의 누이였으리라 (이런 비창한 통곡소리를 어떻게붓으로 그려 낼수없을가!), 나는 그를 좀 방문해 볼가하고, 그의집으로 향하여 시적시적 가다가도, 그때의 그 폐부를찌르고, 창자를 어이든듯한 통곡소리를

연상하고는, 다시 발길을 돌리고돌리고 하였다.²³⁾

이러한 관찰적 태도가 결정적인 변화를 맞는 계기는 ‘이서방’과 ‘나’가 함께 불놀이를 나선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그렇지만 트라크도에서, 자기가 본 불에다 대면, 이런것은 불이 아니라는 말을하면서, 자기는 부산(釜山)에서 목도 하였는데, 일전 음녀 초엿새날, 하늘 한가운데 나타난 흰무지개와, 일곱 개의 색동무지개를 봤느냐, 그러한것이 하늘가뜩이 차있어, 움죽이는꼴을 생각해보아라, 또, 공중에서 반짝이든 별들이 일시에 머리우로 쏟아져 내려오는것을 상생해보아라, 그런것이 트라크도에서, 폭격과 함상 포격을 바드며, 자기가 경험한 화광이라고 말하였다. 아니, 그러한 무시무시한것까지 생각할것없이, 나는 겨우 요만정도의 땅우에 퍼져있는 불빛을, 한참 바라보고있다가도, 고개를 쳐들으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일고있는듯, 겁나게 붉게보였다.²⁴⁾

보름맞이 불놀이의 장관을 앞에 두고 ‘이서방’이 경험한 공중포격 장면과 불놀이가 모습을 비교하는 말을 들으며 ‘나’와 ‘이서방’의 관계는 급격히 역전되어버린다. 이제까지 ‘이서방’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기만 했던 ‘나’에게 ‘이서방’은 더 이상 연민의 대상도, 소설의 ‘이야깃거리’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 ‘상대화된 자리’에 서 있는 존재도 아니게 된다. ‘이서방’이 자기 집에 불을 놓고 멀리 언덕 위에서 비장하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서방’과 ‘나’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불’을 매개로 한 동지의식의 발견이라는 이 작품의 서사는 ‘소설가’로 설정된 ‘안상’이 安懷南 자신과 동일시될 여지를 만들어 내면서 “내가 앞으로 좀더 큰소설가 노릇을 하기위하여서는, 새로살라고 하는 그와함께, 모든새로운 타인의인물을, 붓잡어야만할것이다”²⁵⁾라는

23) 安懷南, <불>, 38면.

24) 安懷南, <불>, 43면.

자각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처럼 ‘亥’과 ‘석재’가 과거의 동료들이 보여주는 표리부동함에 절망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지식인의 책무를 앞세워 감정의 골을 메워가고 동지의식을 확인해가는 서사전개를 보여주는 것과 ‘나’가 ‘이서방’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상화된 민중에게서 미래지향적 주제의식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은 분명 다른 시점에서 비롯된 서사화의 결과이다. 전자를 지식인의 자기성찰과 소통을 통한 발견의 서사라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지식인의 자기갱신의 계기를 대중에게서 발견하는 적극적 실천의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앞선 두 작품 사이에 놓여 서로 빛을 비추며 해방공간의 지식인의 태도와 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텍스트로 종합될 수 있다 하겠다.

앞서 <解放前後>가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 창간호의 첫머리에 수록되고 다시 解放紀念文學賞의 당선작으로 추인됨으로 인해 朝鮮文學家同盟의 ‘해방맞이’와 ‘지식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읽혀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고는 바로 뒤이어 수록된 <불>과 <道程>이 보여주는 대상적 시선이 오히려 ‘관찰적 시선’을 앞세워 해방공간의 역사철학적 의미화를 시도하려 했던 <解放前後>의 ‘亥’의 오랜 고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불>은 지식인 관찰대상이 아니라 정용을 다녀 온 피폐한 민중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식인의 성찰적 계기의 서사화에 더욱 유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金學鐵의 <담배入국>은 관찰자의 존재가 가려진 낯선 소재에 대한 朝鮮文學家同盟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배入국>은 관찰주체가 가려진 ‘대중’의 형상을 제시한다. 앞선 세 작품이 모두 ‘지식인 관찰자’를 드러낸 데 비해, 이 작품은 관찰주체의 속성이 제시되지 않은 채 ‘희화화된 대중’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25) 安懷南, <불>, 45면.

회화화에 머물지 않고 매우 실감 있게 ‘관찰대상’의 속성과 성격을 서사를 통해 구조화하고 있어 소설작법 수준에서는 꽤 밀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解放空間이라는 역사철학적 공간에서 民族文學建設을 표방하는 조직의 創刊號에 수록될 수 있을 정도의 ‘이념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썩 만족스럽다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金學鐵은 항일혁명투쟁에 참여했던 이력을 지닌 인물로 革命戰爭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혁명가로서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작가로의 변신을 꾀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초기작들은 혁명전쟁의 비극성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인물형에 대한 낭만적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것²⁶⁾일수밖에 없어 당대에도 주목받았다.²⁷⁾ 이하에서는 앞선 세 작품들과 한 자리에서 읽히는 이 작품의 위상에 한정하여 이하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이 작품에 대한 朝鮮文學家同盟의 공식 평가를 참조하여 살피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과 앞선 세 작품들을 하나의 전체로 살피려는 본고의 시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로서의 『文學』이 지닌 기관지이자 文藝誌로서의 위상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는 ‘문정삼’이라는 ‘喜劇的’ 인물이 등장한다. 늘 무기력하고 나태하며 무엇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지닌 ‘문정삼’에 대한 에피소드의 나열로 채워져 있다. 인물의 특징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특별한 갈등구조를 배열하지 않고 포착된 사실들에 대한 전달적 진술로 일관하며 간접적으로 ‘문정삼’이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데서 더 나가려 하지 않는다. 앞선 작품들의 관찰주체가 ‘知識人’이었고,

26) 김윤식, 「항일 빨치산 문학의 기원」, 『실천문학』 12, 실천문학사, 1988.12, 397면.

27) 강옥은 이와 관련하여 “그의 소설은 항일투쟁의 극명한 리얼리티와 작가의 심오한 정신적 체험이 결합되었기에 “새로운 소재의 제공이 아무러한 질적 기여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 비판받았다. 김학철 항일 체험 문학의 낙천성은 해방공간 문단에서는 문학의 엄숙성을 파괴한 행위로 질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김학철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0, 45-46면.).

특히 <解放前後>와 <불>은 ‘작가’라는 진술주체를 분명히 내세워 ‘관찰자의 한계상황’이 텍스트에 제시된 관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도록 구조화되었던 데 비할 때, 이 작품은 관찰주체가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찰주체의 ‘視點’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도록 ‘문정삼’의 내면을 자유로이 넘나들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선 세 작품들이 해방공간이라는 특정 시공간이 전제된 한에서 의미화될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構成的 完結性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한 인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는 반면, 관찰대상이 된 인물인 ‘문정삼’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항일무장투쟁조직과 ‘不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의 물음이 또한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 ‘배경과 인물의 부조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작품은 항일무장투쟁조직의 혁명의지를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상의 치명적 약점이라 할 수는 없다.

따장디스홀(打杖的時候兒=중국어. 뜻은 전쟁할때)이라는 별명을 갖인 문정삼은 조선의용군 제 ×지대에서 제—가는 게으름보였다. 그는 十六시간 수면제(睡眠制)의 제창자 였다. 그가 말올하는것은 불가부득한 반듯이 하지않으면 않될 도저히 그냥은 통과할수 없는 경우에 한(限)한 것이였다. 그의 말하는 속도는 흡사 축음기가 태엽이 거이 다 풀려갈때에 내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였다.²⁸⁾

작품의 처음 시작부분부터 이 작품은 ‘문정삼’이라는 인물을 ‘희화화’한다. 이후 그가 輜重隊에서 炊事隊를 거쳐 連絡員으로 補職을 옮겨 가는 과정이 희극적으로 그려질 뿐 어떤 결론을 예비하기 위한 伏線은 서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삼’이라는 인물에 대한 스케치로서의 성격을 띤 이 작품은 앞선 세 작품과 한 자리에 놓이기

28) 金學鐵, <담배八국>, 68면.

에는 매우 이질적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인 『文學』 창간호에 당당하게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은 같은 창간호에 실린 “解放後의創作界”라는 부제가 붙은 金南天의 「創造的事業의前進을爲하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 후 문단의 비이념성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金南天은 아래와 같이 일갈한다.

作家들은 八一五以前의 闇黑期를文學者의誠實性에 依하여 살아 왔다 는 아무러한 證據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闇黑期의 苦役에찬 時期를 이作家는 春風駘蕩한 가운데 살아 온것이다. 우리는 붓을 가지고 現實을 再構成하는 어려운 事業의 担当者로서 闇黑期가 우리 精神生活우에 아무러한 프러스도 남겨주지 못하는 空白期間이라고는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중략] 金學鐵氏의 경우에서 보느바 새로운 素材의 提供이 아무러한 質的寄與를 가져오지 못한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²⁹⁾

앞서의 세 작품들에는 金南天의 이러한 지적을 비껴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들어 있는바, 그것은 본고가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하며 제시했던 이 작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관찰자의 부재’를 대신하는 ‘분명한 관찰자’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명한 관찰자’는 관찰대상 및 그의 행동 전반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데 용이하다. 그에 비할 때, 이 작품처럼 ‘관찰자 부재’이면서 ‘회화화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그 인물의 행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그를 둘러싼 제반 사건이 풍부하게 그려지지 않는 한 단편적인 ‘印象記’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9) 金南天, 「創造的事業의前進을爲하여」, 138-142면.

Ⅲ. 소설과 비평의 상관적 해석 구조

1. 자기성찰의 계기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

앞에서 金學鐵의 <담배入국>에 대한 金南天의 평문을 간단히 살펴본다. 본 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文學』 창간호 소재 평문들이 제시하는 창작지침과 수록 소설작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쌍방향적 독법을 적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金南天의 평문이 제시하고 있는 당대 문학활동의 방향 혹은 작가에 대한 요구를 다시 확인해보자. 金南天은 「創造的事業의前進을爲하여」에서 ① “作家는 그의 創造事業을 우리들의 文學史의土臺우에서 進拂식히려 하지 않고있다”는 점, ② “闇黑期를 文學者的 誠實性에 依하여 살아 왔다는 證據”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③ “八月一五日の 意義를 眞正으로 理解하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金南天의 비판의 요지는 “해방의 역사성에 대한 문학운동의 형상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조직에서 金南天이 차지하는 위치(적어도 밖으로 공개된 조직도에 근거해 볼 때)에 비춰 본다면 朝鮮文學家同盟의 공식적 창작론이 표방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³⁰⁾

이와 같은 金南天의 평문을 앞세우고 소설작품들을 다시 읽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글에서 金南天이 구체적인 작품과 작가들을 언급해가며 세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대목은 바로 두 번째 요구인 “闇黑期를 文學者的 誠實性에 依하여 살아 왔다는 證據”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곧 엄혹한 식민통치를 겪어 내었던 지식인 작가들의 자기고백과 새로운 시

30) 이 평문과 관련하여 김동석은 “1930년 후반 창작방법론 논쟁과의 단절 혹은 초월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문학론의 성과로부터의 연장과 그것의 계승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해방기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대한 일고(一考)」,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1집, 한국근대문학회, 2005.04, 329면.)고 하여 해방공간에 김남천이 제안한 창작방법론이 식민지배기의 카프 계열 문학운동이 모색했던 창작방법론과의 연속성을 앞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를 향한 선언이 작품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네 편의 작품들은 이러한 朝鮮文學家同盟의 공식적 입장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혀 무리한 기대가 아니라 하겠다.

그렇게 볼 때, 분명한 인물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 방향성이 불분명한 金學鐵의 <담배入국>은 더욱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安懷南의 <불> 또한 결말 부분의 극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해 이러한 요구에 충분한 대답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池河蓮의 <道程>과 이태준의 <解放前後>의 경우에는 앞서 두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인공에 해당하는 두 인물의 내면의 변화 양상이 文學家同盟의 기본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역시 썩 만족스럽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소설작품들을 먼저 읽은 후 金南天의 평문을 마주하는 순서를 상정해 본다면 논의는 다소 다른 방향을 향할 수 있다. 먼저 李泰俊의 <解放前後>를 읽은 후 金南天의 평문을 요약한 위 세 개의 명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玄’의 모습이 환기될 수 있다. 해방 전부터 작가적 자의식을 지키면서 엄혹한 통치에서 비껴 서 있으려던 ‘玄’의 방관적 태도는 ‘金直貞’과의 만남을 통해 精潔性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고 해방을 전후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소극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방향으로 이해되도록 이끈다. ‘玄’은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계속 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시선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³¹⁾

31) 유석환은 이 작품을 “문화적 탈식민 과정을 비껴가기 위해 서사적 장치들을 어떻게 안배해야 하는지를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텍스트”(『한반도의 안과 밖, 해방의 서사들-해방을 둘러싼 기억투쟁과 민족문학(론)의 지정학』, 『상허학보』 제 29집, 상허학회, 2010.06, 306면.)라 평한다. 이러한 시각은 ‘玄’의 행보가 ‘자기반

이에 비해 池河蓮의 <道程>의 주인공 ‘석재’는 다소 급격한 변모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玄’에 비해 갑작스럽고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인물로 의미화될 수밖에 없다. 해방 전의 역경에 대한 ‘추억’과 변절한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感傷에서 출발한 ‘석재’의 ‘해방맞이’는 ‘小市民性’에 대한 자각과 적극적 태도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띠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하지만, ‘玄’에 비해 자각의 계기가 주관적인 탓에 실질적 설득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보다는 차라리 安懷南의 <불>의 주인공 ‘安’이 조금은 더 내적 성찰과 자기반성의 실질적 계기를 적절하게 받아들인 인물로서 개연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玄’이나 ‘석재’와 달리 ‘安’은, 작가 安懷南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관찰자로서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작가 지식인이 하층민들의 실제 삶과 마주선 뒤의 당혹감과 자기성찰의 계기로 그것을 전환시켜가는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된다. 텍스트 자체에서는 ‘安’이 ‘이서방’과의 만남과 보름날 밤의 불놀이와 화재사건을 경험하고 곧바로 ‘이서방’을 새로운 세계인식의 매개로 이해하는 과정이 다소 생경하게 그려져 있지만, 金南天의 위 평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방공간의 문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들이 이러한 ‘생경함’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의 기층 민중의 삶에 대해 해방공간의 지식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야 하는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安’의 성찰적 계기의 서사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습화된 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지식인들의 ‘봉건적, 계급적’ 거리두기를 스스로 비판하는 모습을 밀도 있게 형상화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解放前後>의 ‘玄’은 자신을 사이에 두고 ‘金直員’과 과거의 동료들이 보여주는 해방공간에서의 상이한 행보 가운데 하나를 ‘선

성’에서 출발함에도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할 수 있게 서사화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겠다.

택'하는 능동성을 보여주고 이것이 '암흑기를 어떻게 살아 왔는가'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해방의 역사철학적 의의'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형상화를 위한 주체적 성찰의 계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삶의 매개'에 대한 이해를 담아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지식인 내부에서의 시선이 예리하게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대 조선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기층민중들의 삶에 연계되는 작가적 치열함으로까지 승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2. 지식인의 '해방맞이'와 '해방살이'의 거리에 대한 상보적 시선 구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文學』 창간호에 수록된 金南天의 평문을 소설 작품들 앞과 뒤에 각각 위치시켜 읽을 때, 평문과 소설 텍스트 사이에서 생성되는 의미들은 상호적으로 창간호 자체의 해방공간의 소설창작방법론을 구성하도록 기능한다. 이는 소설 작품들을 '지식인의 해방맞이'를 다루고 있다는 소설 자체의 이야기구조에서 출발하여 이들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할 시공간인 해방공간에서의 '지식인의 해방살이'³²⁾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행하여 살펴볼 필요를 제기한다. 곧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문인집단의 기관지인 『文學』이 단순한 문예동호인들의 모임이 발간하는 동인지와는 사뭇 다른 맥락에서 생성되고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설작품들은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당대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지식인의 해방살이'의 실질적인 요구라 할 수 있는 해방공간

32) '지식인의 해방살이'는 해방공간에 등장한 다종다기한 창작론들이 표방한 지향점 가운데 하나로 본고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방향성이다. 여전히 문학활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던 지식인집단들이 과거를 어떻게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문화건설'에 복무할 것인가가 이 시기 문학담론의 핵심을 향하는 물음이었다면, 그것을 일상 삶과 문학적 실천의 조화 속에서 실제 창작으로 구현하는 것은 개개의 문인들에게 부여된 책무였고 이 역시 이 시기의 중요한 문학담론의 지향이었다. 본고는 이를 '해방살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의 문인들의 가치관을 이들 작품들과 평문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담론화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李泰俊과 安懷南, 池河蓮의 작품들은 모두 지식인 주인공과 그들의 시선에 포착된 해방 직전과 직후의 조선이 경험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시공간을 경험한 金學鐵은 민족해방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의용군의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의 회화적 일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金學鐵의 이 작품이 창간호에 수록된 이유를 텍스트 내부에서 추론해보자.

韓曉의 「民族文學과政治性」의 다음 일절은 金學鐵의 이 작품이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에 수록될 수 있었던 단서를 담고 있다.

文學者和 밑文學者의 文學的實踐을 全体로서의 社會的實踐에 있어서 明確히 把握하지 못하고 한개의 純粹한 良心만을 抽象하여 이것을 基軸으로 삼는것만이 文學者의 참된 姿勢라고 위치는 사람이있다. [중략] 文學을 한갓 政治의 隸屬物로 생각하는 見解에는 絶對로 反對다. 過去의 政治至上主義가 그內容을 잃으면서 아직 形式的으로 幽靈化하여 오늘의 文學者를 괴롭히고 있다고는 나는 생각지않는다. [중략] 文學者가 文學을 버리고 政治에 參加한다는것은 想像할수도 없는일이다. 萬一 이러한 事實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政治가 文學에 對하여 지나간날의 傾向 文學에 對해서와 마찬가지로의 權威를 내세우고 있다면 그야말로 憂慮할現象이라 하지않을수없다 [중략] 民族文學은 이러한 實踐의 成果를 土臺로 삼고 그우에서 發展되어야한다.³³⁾

韓曉의 위 진술은 文學의 자율성 혹은 문학 자체의 미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추상도를 높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韓曉는 이른바 ‘순수문학과’를 적시하여 비판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또한 이 글은 ‘實踐’으로 추상화된 작가의 일련의 삶의 총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값을 전제하고 있는 글로 볼 수도 있다. 韓曉는 이 글

33) 韓曉, 「民族文學과政治性」, 133-135면.

에서 金容浩, 林和, 朴世永의 시편들을 언급하며 하이네에 비해 기교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 시편들에는 민중에 대한 사랑과 혁명을 향한 의지가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 작가의 문학적 실천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을 高評한다. 이는 金學鐵의 履歷과 관련지어 볼 때 창간호에 소설을 수록한 네 명의 작가들 가운데 조금도 그 실천력이나 혁명지에서 뒤떨어질 이유가 없음이 확인될 때 더욱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실천지향의 창작론으로 요약 가능하다 하겠다.

한편 창간호에는 이들의 평문 이외에도 러시아의 獨蘇戰爭 시기 아동극 운동을 소개하는 「소聯의 兒童劇」이라는 번역문과 중국의 신문화혁명을 소개하는 李明善의 「中國의 新文學革命的 敎訓」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편의 글은 각각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었거나 실질적인 혁명완성에 접어 든 두 국가의 문학운동을 소개하는 글로, 朝鮮文學家同盟의 정치지향과 당대 조선의 혁명단계에 대한 규정과 긴밀히 연관되는 선택으로 생각된다. 이 두 편의 글은 해방공간 조선과 시기적으로 동시대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오히려 金學鐵의 <담배入국>의 시간배경으로 제시된 조선의용군 시절과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작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나머지 세 작품들이 해방직전과 직후를 아우르며 조선 내에서 지식인의 자기성찰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사뭇 다른 소재를 다룬 金學鐵의 저작이 소련과 중국의 문학운동에 대한 글에 의해 멀리서 조명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朝鮮文學家同盟의 기관지로서의 『文學』의 위상과 문예지로서의 『文學』의 위상이 갈라지는 지점을 환기시킨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적어도 해방공간에 대한 적실한 인식과 문학적 구현의 연계를 ‘민족문학론’을 통해 종합하려는 입장, 곧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이름에서 환기되는 조직주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李泰俊의 <解放前後>가 보여주는 ‘지식인의 해방맞이’의 구체적인 방향이 池河蓮의 <道程>이 보여주는 ‘지식인 관찰자에 의한 지식인의 대상화’와 安懷南

의 <불>이 보여주는 ‘지식인 관찰자에 의한 민중의 계기화’로 분화되는 구도 속에서 金學鐵의 <담배入국>과 같은 ‘경험적 낭만성’은 끼어 들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와 작법의 문제성은 또한 문학의 다양한 실천과 문인집단의 확대라는 ‘문단’의 시각에서라면 소중한 友軍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관지와 文藝誌의 두 개의 원심력이 작용한 지점에 이 작품이 놓여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앞서 金南天의 평문에 언급된 것처럼, 金學鐵의 이 작품에 대한 『文學』 주도층의 공식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³⁴⁾ 그러나 창간호에는 金學鐵과 흡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金台俊의 에세이 「延安行」이 연재되기 시작하였다.³⁵⁾ 주지하다시피 金台俊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조선의 자생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주도적 인물이었고 길지 않은 일생동안 사회주의운동의 기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던 이념분자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학문연구방법론의 세례를 받은 본격적인 국학연구의 첫 세대를 장식하는 인물이다.³⁶⁾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創刊號에 이러한 이력의 金台俊의 저작이

34) “金學鐵氏의 경우에서 보는데 새로운 素材의 提供이 아무러한 質의 寄與를 가져 오지 못한것도 이 때문인것이다.”(『創造的事業의 前進를 爲하여』, 138-142면.)

35) 「延安行」에는 김태준의 자전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을 팔아 延安으로 가는 여비를 마련하려 하면서 경험한 학자로서의 자괴감과 사회주의 운동을 향한 열정 등의 에피소드는 동시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 사회주의 사상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증거하는 소중한 자료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최영성, 『金台俊의 學術研究와 國故整理作業』,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2005 참조.)

36) 박희병은 김태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말미에 “천태산인은 도남과 함께 일제시대 최고의 국문학자였다. 그러나 천태산인의 치열한 정신이나 실천적 태도, 그리고 학문적 문제의식과 예기(銳氣)는 도남을 능가하는 면이 없지 않다. 국문학에 대한 천태산인의 인식태도와 연구방법, 그리고 그 자세에는 지금도 배울 점이 많다”(『天台山人의 국문학연구 2』, 『민족문학사연구』 4,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1993, 218면.)고 高評한다. 김용직 역시 “이 무렵 우리 학계의 구성원 대부분은 미처 한 권의 저서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태준은 위와 같은 연구업적들을 발표하여 당시 우리 학계와 문단에서 주목의 과녁이 되었다. 그것으로 그는 우리 학계와 문단, 문화계의 강한 충

수룩된 것은 金台俊 개인의 이력과 해방공간에서의 사회주의 운동 진행에서의 金台俊의 위치가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文學』 창간호가 발간되던 시점인 1946년 7월 무렵까지 범좌익계열 문인집단이 ‘민족문학’을 앞세운 세력확장을 시도하던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문단을 대표하여 민족문학운동을 펼칠 것을 자임하던 이들로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金台俊이나 金學鐵 등의 경험과 저작물들이 좌익계열 문학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민족문학운동의 주도 세력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조선 내에서 활동하던 좌익계열 문인들에게 남아 있는 원죄의식³⁷⁾을 감쇄시키는 데도 이들은 썩 긴요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 이들과의 연계의 균형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金南天의 평문에서 사뭇 다른 어조를 띠고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해방공간에서 문인 지식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해방살이’의 방식은 물론 당위적 명제로서의 ‘민족문학건설’에 복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과 작가의식의 체현 방향은 ‘낯선 경험’의 이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대 조선 내의 현실과 긴밀히 연결시키는 작가적 재현과정, 곧 문학적 형상화라는 고도의 전문적 재구성 과정이 요구되는 고도의 추상적 사고영역에서 날카롭게 다듬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런 까닭에 金南天은 ‘낯선 소재를 생경하게 제시하는 데 그친’ 金學鐵보다는, 소극적이고 유동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시민적 성향을 담고 있으나 바로 그러하기에 더욱 진솔하다고 여겨지는 李泰俊이 더욱 해방공간

격파로 작용했다. [중략: 인용자] 일제에 대해 더욱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는 식민지 체제하에서 학문을 하는 일이 역사와 민족적 현실을 외면한 무사와 안일주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김태준평전』, 일지사, 2007, 21-22면.) 라고 하여 김태준의 문학사연구의 몫을 높이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37) 강폭한 식민현실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절필을 두고 김사랑이 일갈했던 ‘문인으로서의 책임방기’에 대한 일정한 해명이자 보완으로서 金台俊이나 金學鐵 등의 새로운 경험집단의 수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 ‘지식인의 해방살이’에 더 적합하다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IV. 結論

폭압적 식민지배를 벗어났음에도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찾지 못했던 해방공간의 문인들 가운데 좌익계열에 속한 이들이 조직한 朝鮮文學家同盟은 기관지 『文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창간호에 실린 소설 작품만을 대상으로 기관지면서 문예지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文學』이 창간호에서부터 이중성이 빚어낸 내부의 긴장이 전일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運動’과 개성적이고 내면적일 수밖에 없는 ‘文學’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해야만 하는 것’과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사이에 서 있던 작가들의 ‘자기의 선택’과 ‘타자의 시선’이 빚어내는 불일치에서 비롯된 불균형이었다. 『文學』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작품들은 ① 해방공간을 살아 나가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의 자화상이며, ② ‘運動’과 ‘文藝’의 긴장 속에서 ‘選擇’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던 문인들의 조급증의 징후이자, ③ ‘건강한 민중성’에 대한 관념적 기대와 속물적 소시민성에 대한 연민을 응시하는 지식인의 ‘비겁한 응시’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네 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각각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아 놓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朝鮮文學家同盟을 결성하고 ‘文學運動’을 표방한 문인들 자신의 욕망의 자장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의 시선을 잡지의 구성을 통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비평저작들과 마주 세워본 결과 그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메시지를 제시해줌이 확인되었다. 창간호에 수록된 비

평저자들은, 해방공간의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조직이 지니고 있었던 ‘민족문학’의 실체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신, 도리어 소설보다 더 추상적이거나 단순화된 ‘당위’를 반복 진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서도 비평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기점점의 논리적 서술구조는 소설이 미학적 구성을 지향하며 요구받는 언어의 비논리적 운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혹은 좀 더 명증한 운용을 요구받는 까닭에 ‘추상적’ 혹은 ‘당위적’ 진술이 구체적인 지향이나 지침으로 기능하도록 수용될 여지가 적지 않았다.

‘관찰적 주체’를 앞세워 ‘해방맞이’를 서사화한 세 편의 작품과 ‘관찰적 시점’을 텍스트 내부로 투입시켜 대상을 직접 앞세운 한 편의 작품이 수록된 『文學』 창간호는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문인조직의 기관지면서도 문학 자체의 완결성을 앞세우는 문예지일 수밖에 없었다. 네 편의 소설 작품들이 관찰적 시선에 의해 서사를 추동시키면서도 각기 서로 다른 지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은 기관지면서 문예지일 수밖에 없던 『文學』의 독특한 위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좌라 하겠다. 아울러 병렬된 비평저자들은 기관지가 되기를 욕망하는 ‘조직의 목소리’와 문예지로서의 자유로움을 욕망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미봉된 형태로 상이한 층위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었음에서도 이러한 이중성은 다시 확인된다.

해방공간에서 식민지 시기의 비겁성을 ‘反省’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清算’일 수도 있었으나 이는 동시에 삶의 연속성이 빚어내는 끈적거림에 대한 ‘辨明’일 수도 있었다. 『文學』 창간호 소재 소설작품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작가의 내면의 솔직한 고백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문학 자체로 완성되는 것과 해방공간의 역사철학적 특수성 속에서 의미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구조화되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 연구방법으로 수록 저작들 상호간의 의미의 발생 양상을 소설과

비평 저작에 한정하여 재구성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고는 이 시기 朝鮮文學家同盟으로 대표되는 좌익계열 문학운동집단이 표방한 해방공간에서의 민족문학건설을 위한 작가의 자세와 관련된 창작의 지침을 소설 작품과 비평 양 저작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예지로서의 성격만을 지니는 저작이라면, 비록 ‘문단정치’라 부를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수반한다 하더라도 해석에 임할 때는 수록 저작들의 독립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지로서의 속성을 앞세운 『文學』의 경우는 그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였고 실제 소설과 비평 저작을 넘나드는 텍스트 독법이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접근 방식이 雜誌 일반의 독법에도 범용될 수 있다고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朝鮮文學家同盟이라는 해방공간의 특수한 집단들이 표방한 민족문학운동이 실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비평담론 층위에만 머물고 실제 창작으로 구현되지 못했는지를 가늠해보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유의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고의 접근방법을 詩와 수필, 기타 잡지에 수록된 다른 유형의 저작들로 확장하여 텍스트 상호간의 연계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비평문 중심의 문학담론연구가 채 주목하지 못했던 동시대 텍스트의 소비양상을 좀 더 풍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文學』 創刊號, 朝鮮文學家同盟 中央執行委員會 書記局, 1946.07.01.
『建設期的 朝鮮文學』, 朝鮮文學家同盟 中央執行委員會 書記局, 1946. 06.
28.

2. 논문 및 단행본

- 강옥, 『김학철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0.
구모룡, 「해방 이후의 비평-비평과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 19호, 한국근대문학회, 2009.04(7-29면).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 47호, 한국비교문학회, 2009(269-294면).
김동석, 「해방기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대한 일고(一考)」, 『한국근대문학연구』 1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04(326-352면).
김용직, 『김태준평전』, 일지사, 2007.
김용희, 「해방이라는 숭고한 대상과 언어적 공황-오장환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9호, 국어국문학회, 2005.05(367-389면).
김윤식, 「항일 빨치산 문학의 기원」, 『실천문학』 12호, 실천문학사, 1988. 12(391-424면).
_____,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90.
박정선,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화대중화담론과 조직적 실천」, 『어문학』 93호, 한국어문학회, 2006(433-469면).
박희병, 「天台山인의 국문학연구 2」, 『민족문학사연구』 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1993(166-218면).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 양상-인물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학』 44호, 국제어문학회, 2008(329-354면).

- 유석환, 「한반도의 안과 밖, 해방의 서사들-해방을 둘러싼 기억투쟁과 민족문학(론)의 지정학」,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2010.06 (299-331면).
- 유철상, 「해방기 민족적 죄의식의 두 가지 유형」, 『우리말글』 36호, 2006 (343-369면).
- 이양숙,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8호, 한국현대문학회, 2009(281-307면).
- 이정, 「지하련의 삶과 문학」, 『여성과 사회』 6호, 한국여성연구소, 1995 (204-224면).
- 최영성, 「金台俊의 學術研究와 國故整理作業」, 『한민족어문학』 46호, 한민족어문학회, 2005(177-212면).



<Abstracts>

An Analysis of the Intertextuality between
 novels and critics in the 1st issue of
Mun-hak, the organ journal of ‘Cho-sŏn
 mun-hak ga tong-maeng’(the Federation of
 Korean Writers)

Seo, Hyoung-Bom

In Korean Liberation Period, so called ‘Hae-bang Kong-gan’(means the free field of discourse for the founding nation-state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literature), Korean left-wing writers formed a literary organization ‘Cho-sŏn mun-hak ga tong-maeng’(the Federation of Korean Writers). They published an organ journal, named *Mun-hak*(literature in english). There are antithetical properties, one is the aspect of the public organ journal of left-wing writers who have made a great efforts for founding ‘min-jok mun-hak’(the literature of modern nation-state) and another is that of the literary magazine for many writers who have written ideological and non-ideological works for polite literature readers. This article analysed four novels and two critics in 1st issue of “*Mun-hak*”. Yi Tae-jun’s “Hae-bang chŏn-hu”(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Chi Ha-ryŏn’s “To-chŏng”(A Course) and Ahn Hwae-nam’s “Pul”(A Fire) have showed intellectuals’ self-reflection and regret for the acton against Korean people in Japan’s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and future-oriented viewpoint for ‘min-jpk

mun-hak'. The heroes of these two novels are the intellectuals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for founding nation-state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Kim Hak-chöl's "Tam-bae Kuk"(The Tobacco soup) have intellectual observer who showed the clueless foolish Korean man who accompanied the chinese socialist army. Although each work of them has independent meaning in social situation, if they are read as integrated work they reveal the organ's uncertainty for the literary movement in the nation-building period. There are not only intellectual subjects' vision of futurity of new country but also their embarrassment of sudden change of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in "Hae-bang chön-hu" and "To-chöng". "Pul" and "Tam-bae Kuk" showed the intellectual subject's uncertainty between the appropriateness of the friendship for the public and the disillusionment with their attitude of petit bourgeois. By complementary reading the critics in 1st issue of the Mun-hak, these novels' intellectual subject's uncertainty should be showed themselves.

Key Words : Cho-sön mun-hak ga tong-maeng(the Federation of Korean Writers), organ journal, literary magazine, Korean liberation period, intertextuality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3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